

# 여성·생명·자유: 2022년 이란 히잡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의 역사\*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본 연구는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시위와 그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이란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2022년 시위를 조명한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아래 전개된 이 시위는 단순한 히잡 의무화 반대를 넘어 이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하타미 대통령 시기의 시민사회 형성, 2006년 백만 서명운동, 2009년 녹색운동 등 주요 사건들을 통해 이란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진화해왔다.

2022년 시위의 특징은 전국적 확산,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참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제적 연대, 창의적 저항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슬람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였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이란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열망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2022년 히잡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특히 히잡법 강화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란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2022년 시위는 단순한 반정부 시위를 넘어 이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민주화, 여성 권리, 중동 사회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에 기여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이란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이란의 정치·사회적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주제어** 시민 불복종, 시민사회, 이란 히잡 시위, 여성·생명·자유, 이란 여성운동

## I. 서론

거리에서 춤을 추기 위하여/키스하기 두려워서/  
내 여동생을 위하여, 당신의 여동생을 위하여, 우리의 누이를 위하여/  
빈곤을 위하여/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을 위하여/쓰레기 줍는 아이와 그의 꿈을 위하여/  
하어/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5596).

부패한 경제를 위하여/오염된 공기를 위하여/발리아스르 거리의 시든 나무를 위하여/  
 하여/

웃는 얼굴을 위하여/학생들을 위하여/미래를 위하여/이 강요된 천국을 위하여/  
 수감된 지식인들을 위하여/이민 온 아프간 아이들을 위하여/공허한 강령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긴 밤 뒤에 떠오르는 태양을 위하여/신경안정제와 불면증 약을 위  
 하여/

남성, 조국, 번영을 위하여/소년이 되고 싶었던 소녀를 위해/여성, 생명, 자유/  
 자유를 위하여/자유를 위하여/자유를 위하여

- 위하여(Baraye), 가수 셰르빈 하지푸르(Shervin Hajipour)

2022년 9월 28일, 이란의 국내 가수 셰르빈 하지푸르(Shervin Hajipour)가 발표한 ‘위하여(Baraye/For...)’라는 노래<sup>1</sup>는 당시 진행 중이던 이란 시위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하지푸르는 트위터에서 다양한 연령, 계층, 소수 민족의 이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를 표현한 트윗들을 수집하여 가사를 작성하고 곡을 부여하였다. 이 노래는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반정부 시위 참여자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다. 비록 원본 영상은 작가의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되었으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개인 간 통신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2022년 10월 1일에는 서울, 토론토, 런던, 로스앤젤레스,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글로벌 연대 시위에서 이 노래가 연주되거나 대중들이 함께 부르며 그 영향력의 국제적 확산을 입증하였다.

토히디(Tohidi, 2023: 29)는 2022년의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해방운동이자 인본주의적 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희망과 미래가 부재한 이란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실존주의적 순간(existentialist moment)’으로 해석하였다. 토히디는 ‘Baraye’ 노래의 가사가 이 시위의 핵심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sup>1</sup> <https://www.instagram.com/shervinine/>. 하지푸르는 이 노래로 제65회 그래미상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최우수 노래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노래로 2022년 9월 29일에 체포되었고, 2024년 3월 정부에 반대하는 선전물을 제작한 혐의로 8개월, 국가 안보 위반으로 3년을 포함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하지푸르는 2024년 9월 23일에 사면을 받게 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Shervin\\_Hajipour](https://en.wikipedia.org/wiki/Shervin_Hajipour) 참조).

주장하였다. 이에 2022년 이란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히잡 소각, 총격 위협 하의 지속적 시위 참여—의 근본적 동기와, 5개월 이상 이란 전역 160개 이상의 도시, 143개 대학 캠퍼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의 원동력에 대한 분석적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

2022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이란 내외를 격동시킨 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이었다. 쿠르드계 소수 민족 출신인 아미니는 테헤란 방문 중 지도 순찰대의 복장 단속에 적발되어 재교육센터로 이송되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 9월 16일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을 뒤흔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트위터 해시태그 #MahsaAmini는 5억 개의 트윗이라는 세계적 기록을 갱신하였다(Kermani, 2023: 3). 이란이슬람공화국 전역의 다양한 세대와 소수민족, 그리고 전 세계 이란인 디아스포라가 ‘여성, 생명, 자유’,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구호 아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연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2022년의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이란의 시민 불복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슬람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히잡의 강제화와 여성에 대한 샤리아법 적용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며, 1981년 히잡 착용 법제화 이후 약 45년간 히잡 문제는 진보적 여성들과 이슬람 정권 사이의 지속적인 문화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22년의 이란 시위는 단순한 여성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 시위를 분석한 학자들은 이란 현대사를 재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봉기’(Kashani-Sabet, 2023; Molana etc., 2023; Mehrabi, 2022)이자, 이란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젠더 관계 및 성적 통념의 ‘혁신적이고 불가역적인 전환점’(Tohidi, 2023: 29)이며, 내면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혁명적 과정(Bayat, 2023: 20)으로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쿠르드계를 포함한 소수민족의 참여는 이 운동이 동질화되고 헤게모니화된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adeghi-Boroujerd, 2023: 417-418).

또한 이란 사회를 분석한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위는 돌발적인 현상이 아닌 시민 불복종 운동의 역사적 결과물로 해석된다. 이란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1990년대 말 모함마드 하타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시작된 시민 사회

의 부상과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2006년 백만서명운동, 2009년 녹색운동, 2014년 ‘나의 은밀한 자유’ 운동, 2017년 ‘혁명거리의 소녀들’ 운동, 2017-2018년 경제 위기로 인한 대규모 유혈 시위, 2019년 11월 유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시위 등 일련의 사회운동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2022년 시위는 이러한 이란 시민 불복종과 시민 반란의 역사적 연속성 상에 위치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다(Afary and Anderson, 2023; Bayat, 2023; Molana etc., 2023; Sadeghi-Boroujerd, 2023; Tohidi, 202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2022년 9월 당시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이란 국내외 시민들이 뉴스와 시위 정보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고 확산시키는 온라인 ‘현장’을 실시간으로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와 현지조사를 활용하였다.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란 현지의 정보제공자 4명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유학생 5명과 교수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2024년 9월에는 일주일간의 단기 현지조사를 통해 2022년 시위 이후 변화된 도시 경관을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10대 1명, 20대 2명, 4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을 대상으로 각각 1시간 이상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총 8명의 여성 참여자로부터 면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란 여성 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시민 불복종의 이론과 실천 간의 역동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억압적 정치체제 하에서 시민 불복종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한계 및 도전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022년 이란 히잡 시위를 통해 이란의 시민들은 이슬람공화국의 근간인 정치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리고 시위의 여파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 사회를 불안하게 관통하고 있고, 앞으로의 정권 체제 유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다. 2022년 히잡 시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이란 내부의 사회적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시민 불복종과 수행적 자아

이란의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시민 불복종과 여성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회운동으로, 이란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아라쉬 아지지(Azizi, 2024)는 이번 시위를 관통한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는 강제적인 히잡, 억압된 자유, 환경 문제, 난민 문제, 노동 운동, 평화와 일상적인 삶을 위한 저항을 모두 통합시킨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적인 사망을 촉매제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이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시민 불복종, 시민 저항, 일상적 저항, 여성 운동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민 불복종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2022년 히잡시위는 이슬람 정권의 억압적 법과 정책, 특히 강제 히잡 착용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 행위로 시작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감에 호소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된다(롤즈, 2003). 롤즈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보다는 정치적 원칙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사이버페미니즘 운동으로 시작된 이란 여성들의 공적인 장소에서 히잡 벗기 행위는 전형적인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일련의 행위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이란 사회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핵심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히잡 강제법에 대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저항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계기로 어떤 ‘임계점’을 초과하여 집단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 따른 저항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힘을 지닌다고 주장한 한나 아렌트의 주장과도 연결된다(아렌트, 2011). 아렌트는 의미 있는 시민 불복종은 바로 ‘관심의 공동체(a community of interest)’를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수행’할 때 이루어짐을 강조한다(아렌트, 2011: 94).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롤즈가 주장한 ‘공적 행위(public action)’와 한나 아렌트가 논의한 ‘공적 의견(public opinion)’

이 시민 불복종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이다(장동진·김범석, 2016). 이번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위성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리고 소규모 모임들을 통해 사적 공간이 공적 의견을 나누는 공적 공간으로 전유되고, 이것이 ‘공적 행위’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쳐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란의 2009년 녹색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2017-2019년 사이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대규모 시위, 그리고 2022년 히잡 시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도 일상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대규모 시민봉기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특히 2009년 이란의 여름은 비폭력적 사회운동으로서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녹색운동에서 이란 시민들의 권력 투쟁은 비폭력적 대중 동원과 시민 불복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개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 변혁이 단발적이고 단기간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더불어 이란의 비폭력 사회운동은 억압받는 이들의 자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habot and Sharifi, 2013: 11-14). 이란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마치 거대한 모습을 잠시 감추고 있는 마그마와 같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혁명적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라는 한 여성의 죽음이 여성의 존엄성,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결집시켜 놀라운 정치적 격변을 일으킨 것처럼(Bayat, 2023: 22),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행동 그리고 ‘비운동’이 이란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현재,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찰되는 이란의 모습은 1981년 히잡 의무 착용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채 맨머리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쇼핑몰에서 ‘몰링’을 즐기는 여성들의 모습은 이란의 공적 영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상화되고 수행성을 가진 주체로 행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이란 히잡 시위 이후, 현재 이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히잡 벗기 행위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적 저항(performative resistance)으로 해석될 수 있다(버틀러, 2018). 이란에서 히잡은 무슬림 여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자 가장 상징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히잡을 벗는 행위는 이러한 젠더 수행성을 전복시키는 상징적이

자 행위자적 주체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버틀러의 수행적 저항 개념은 일상적 행위를 통해 권력 구조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본다. 히잡을 벗는 행위는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저항의 형태로, 일상적 실천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수행적 저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이 행위는 여성의 몸을 공적 영역에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버틀러가 언급한 ‘등장의 정치’와 연결된다. 이는 억압받는 주체가 스스로를 가시화함으로써 권력 관계에 도전하는 수행적 저항의 한 형태이다. 버틀러는 반복적 수행을 통해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버틀러, 2018).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히잡을 벗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공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동시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단적 수행성’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히잡 벗기 행위는 기존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행적 저항은 바야트(2023)가 언급한 일상적 저항과도 궤를 같이한다. 바야트는 이란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하거나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저항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한다(Bayat, 2023). 이러한 일상적 저항은 스콧(Scott, 1985)이 제시한 ‘일상적 형태의 저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스콧은 공개적이고 조직화된 저항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저항 행위들이 축적되어 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여성들과 젊은 세대들의 일상적인 저항은 이란 사회의 세속적 성향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을 분석하는 다수의 인류학적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구기연, 2017; Mahdavi, 2011; Khosravi, 2008; Varzi, 2006).

하지만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성격을 지닌 이 시민사회운동은 다양한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란의 지속적인 시위를 분석하면서 이란 정권의 견고성을 지적한다. 이는 중앙집중적 리더십의 부재, 명확한 전략과 로드맵의 결여 등이 이 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이 이란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란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이슬람 혁명의 역

사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그 어느 곳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79년 이래 이란은 지속적으로 혁명적 순간을 경험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신성한 신정일치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이란 시민들의 존재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구체화된 목소리를 가진 시민사회의 성장 배경과 이란 여성 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 III. 이란의 시민사회의 배경과 여성운동의 역사

#### 1. 이란의 시민사회

이란의 시민사회 담론은 전지구적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 제3세계주의 개발 전략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국제기구들과 개발 기관들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개발’을 강조하며 긴축조치와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다(Rivetti, 2020: 103). 이란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은 그 의미에 따라 다양한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입헌혁명 시기를 시민사회의 태동기로 볼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운동은 모함마드 하타미 시기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의 전통적 시민사회에서는 올라마(성직자층)와 바자리(시장 상인)가 주요 행위자였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입헌혁명과 이슬람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Kamali, 2018: 31-33). 현대 이란의 시민사회 담론은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발전했다. 첫째는 1988-1989년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결과 이맘 호메이니의 사망이며, 둘째는 1997-2005년 모함마드 하타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다(Kamrava, 2001: 169-170). 하타미 대통령은 ‘시민 사회(*Jame Madani*)’를 선거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7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의 재임 기간은 이란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타미 대통령은 ‘이슬람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시민

사회 담론은 이슬람적 사상과 문화를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Rivetti, 2020: 153).

1999년 이란 학생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시민사회 담론의 등장과 함께 대학생 조직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학생들은 이슬람 혁명 이전부터 사회변화를 위한 저항조직을 결성해 왔으며, 혁명 초기에는 대학이 정치활동의 본부 역할을 했다(구기연, 2017: 77-79). 1999년 7월 발생한 대규모 학생시위는 하타미 정부 시기 개혁에 대한 열망과 보수파의 반발이 충돌한 결과였다. 이 시기 25-45세 사이의 새로운 세대가 시민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이데올로기적 지향보다는 인권과 비폭력을 추구했다.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자유가 이들의 주요 목표였다.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문화정책은 중산층, 여성,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Semati et al., 2007: 22-23).

2000년대 들어 이란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2005년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대통령 당선으로 보수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개혁 움직임이 후퇴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2009년 ‘녹색운동’으로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대선 부정 의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였으며,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0년대에는 경제 문제가 시민운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2017-2018년과 2019년의 대규모 시위는 경제 악화, 부패, 연료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위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로 봉합되었다.

이란의 시민사회는 지난 45년간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어왔다. 1999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2009년 녹색운동, 2010년대의 경제 시위, 그리고 최근의 히잡 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 경제적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요구를 표출해 왔다. 비록 즉각적인 체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은 이란 사회 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란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탄압,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 등이 시민사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도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초기의 정치적 개혁 요구에서 시작해 경제적 정의, 여성의 권리, 개인의 자유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와 전략도 진화해 왔다.

## 2. 여성 시민운동

이란의 여성 시민사회운동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 운동의 기원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이어진 입헌혁명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25년 팔레비 왕조의 수립 이후, 레자 샤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진했다. 1936년에는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Paidar, 1997). 이 시기의 개혁은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이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란 여성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시기는 모함마드 레자 팔레비 샤의 '백색혁명'이 추진되던 때였다. 1967년, 이란은 가족보호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크게 확대했다. 이 법은 여성의 결혼 최소연령을 15세로, 남성은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975년의 추가 개정을 통해 일부다처제에 대한 남성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자녀양육권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를 개선했다. 이 시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고,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급증했으며,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졌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Paidar, 1997: 152-157).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함께 이란 여성의 권리는 하루아침에 극적인 후퇴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이슬람 정권은 가족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여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권리를 상실했다. 이혼 신청권, 자녀 양육권, 판사가 될



출처: <https://picryl.com/media/iranian-womens-protest-against-the-compulsory-hijab-5-july-1980-published-in-c9e5a3> (검색일: 2024. 3. 10.)

그림 1 1980년 7월 5일 강제 히잡법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Jomhourie Easlami Newspaper)

권리,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해외여행을 할 권리 등이 사라졌다. 일부다처제가 부활했고, 모든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란 여성들도 이와 같은 문화 대혁명에 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97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테헤란에서는 대규모 여성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에서 여성들은 히잡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고 혁명 이전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위는 강경파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고, 이는 향후 여성운동이 직면할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또한 이 시위가 2022년이 될 때까지 계속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90년대 말, 모함마드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여성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시기에 여성 NGO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여성 잡지들이 활발히 발간되었다. 특히 ‘Zanan’(여성)이라는 잡지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담론을 이끌었다. 이 잡지는 여성의 법적 권리, 가정 내 폭력, 교육과 취업 기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란 사회 내 젠더 이슈에 대한

공론장으로 이끌어내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란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켰다. 이는 이슬람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재해석하고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코란과 하디스 등 이슬람 경전의 여성 친화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슬람과 여성의 권리가 양립 가능함을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 여성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었다. 여성 활동가들은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여성 차별적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백만서명운동이었다(Khorasani, 2009; Rafizadeh, 2014; Sadeghi-Boroujerdi, 2023: 412; Sameh, 2014).

이란의 백만서명운동은 2006년에 시작된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시민사회운동으로, 이슬람 정권 하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 개선을 목표로 했다(Sadeghi-Boroujerdi, 2023). 이 운동은 중동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맞춰 발전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 모델을 제시했다. 백만인 서명운동의 목표는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결혼과 이혼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 2) 일부다처제와 임시 결혼 종식, 3) 남녀 모두 형사 책임 연령을 18세로 인상, 4)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동등한 보상, 5) 동등한 상속권, 6) 명예 살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법률에 대한 개혁, 7) 여성의 동등한 증언권 보장이었다.<sup>2</sup> 백만인 서명운동의 주요 목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제 해결을 목표 삼아, 차별적인 가족법 개정을 위해 100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세미나, 거리 공연, 대면 서명 수집 등 서구식 운동 방식을 채택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점차 일상적 공간에서의 저항 형태로 변화했다.

백만서명운동은 ‘조용한 침투’ 전략을 통해 일상적 실천으로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회정치적 변화를 추구했다. 활동가들은 지하철, 거리, 공원, 택시, 쇼핑몰, 미용실, 대학 캠퍼스 등 일상적 공간에서 서명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다.<sup>3</sup> 이는 단순한 서명 수집을 넘어 여성의 권리와 법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

<sup>2</sup> <https://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iranian-activists-one-million-signatures-campaign-gender-justice-2006-2008>(검색일: 2024. 8. 10.)

<sup>3</sup> <https://icanpeacework.org/2013/09/the-one-million-signatures-campaign-an-effort-born-on-the-streets/>(검색일: 2024. 8. 10.)

이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다. 활동가들은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서명을 모으며 사적 영역에서의 의식 변화를 꾀했다. 심지어 구금된 활동가들은 감옥을 새로운 집단행동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가장 소외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온라인 공간의 활용도 ‘조용한 침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활동가들은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했다. 정부의 검열에 대응하여 웹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사용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국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디아스포라 이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Khorasani, 2009: 77-79).

이란 정부의 감시와 탄압에 대응하여, 운동은 수평적 구조와 분산된 리더십을 채택했다. 이는 단순히 생존전략이 아니라, 운동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지도자나 조직 구조 없이,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성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정부의 타겟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백만서명운동의 특징은 실용적이고 상황적인 페미니즘 접근에 있다. 운동가들은 이념적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법 개정과 일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의 결혼 연령, 시민권, 이혼권, 형사책임 연령, 상속권 등 구체적인 차별적 법률들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이란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발전한 ‘상황적 페미니즘’의 예로, 이슬람 페미니즘이나 세속적 페미니즘 등 기존의 이념적 접근을 넘어선 실천적 방식이었다(Sameh, 2019).

이란 여성운동으로서 백만서명운동의 의의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은 이란 여성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서구의 ‘구원’ 담론에 도전하며, 이란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둘째, 운동은 이란 사회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상적 대화와 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리문제를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셋째, 운동은 이란의 특수한 정치적, 종교적 맥락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슬람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이 운동은 초국가적 페미니즘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여성 운동가들은 서구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에 도전했다. 글로벌 페미니즘 내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와 같은 초국가적 경계를 넘는 디아스포라와 연대 활동은 2022년 히잡 시위의 글로벌 연대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 백만서명운동은 이란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에 직면했다.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법적 제재와 형사처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2006년 12월 15일 제이남 페이감 바르자데가 테헤란 지하철에서 서명을 수집하다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무려 7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나 ‘체제에 대한 선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운동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과 차단, 활동가들의 해외 여행 제한, 집회와 워크숍의 강제 해산 등 다양한 형태의 탄압이 이루어졌다.<sup>4</sup> 특히 2009년 대선 이후에는 탄압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많은 활동가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예를 들어, 텔라람 알리는 2007년 7월에 34개월의 징역형과 10대의 태형 선고를 받았고, 운동의 주요 웹사이트인 ‘Change for Equality’는 2008년 12월까지 18차례나 차단되었다. 2008년 3월에는 파르빈 아르달란이 스웨덴에서 올라프 팔메상을 수상하러 가려다 공항에서 저지당하는 등 활동가들의 해외 여행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운동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운동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활동가들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Sameh, 2014; 2019).

백만서명운동과 2009년 이란 대선 이후 발생한 녹색운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운동은 이념적 연속성, 활동가 네트워크 공유, 전략적 유사성, 요구사항의 확장, 정부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국제적 관심 증대, 여성의 리더십 강화 등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연속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백만서명운동을 통해 강화된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리더십이 녹색운

<sup>4</sup> <https://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iranian-activists-one-million-signatures-campaign-gender-justice-2006-2008>(검색일:2024. 8. 10.)

동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2009년 테헤란의 거리에서 녹색의 히잡과 녹색의 팔찌를 끼고 주도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인 이들은 바로 이란 여성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었다(구기연, 2017: 184-186).

백만서명운동의 비폭력 저항과 민주적 개혁, 그리고 일상적인 저항 전략은 2009년 녹색운동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었다. 백만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녹색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녹색운동의 조직과 확산에 기여했다. 두 운동 모두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자를 모았다. 이는 이란 정부의 언론 통제를 우회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 녹색운동은 백만서명운동의 여성 권리 요구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운동의 의제가 더 넓은 맥락에서 다뤄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운동 모두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강화했다. 백만서명운동으로 인해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은 녹색운동 시기에 이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다.

백만서명운동은 이란의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민사회 운동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며, 이후의 녹색운동과 2022년 히잡 시위로 이어지는 이란 여성운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또한 2014년 페이스북의 “My Stealthy Freedom” 페이지를 시작으로 일어난 이란 안팎의 ‘히잡 벗기 운동’은 2022년 히잡 시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저널리스트 마시 알리네자드에 의해 시작된 히잡을 통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WhiteWednesday 운동과 #MyCameraIsMyWeapon 운동 등의 해시태그 운동으로도 발전했다(구기연, 2019: 9-15). 이란의 사이버페미니즘 운동을 연구한 구기연의 연구(2019)에서 이란 여성들의 수동적이지만 공적 영역의 분산된 개인들 사이에서 침묵의 커뮤니케이션이 연대 의식을 가져온다는 아세프 바야트(2007)의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2022년 이란 시위에서는 바로 이 수동적이고, 일정한 네트워크가 의사 소통 행위들(communicative actions)로 전유될 것이라는 예상이 역사적 사건으로 현실화되었다.

#### IV. 히잡 시위, 왜 청년들은 거리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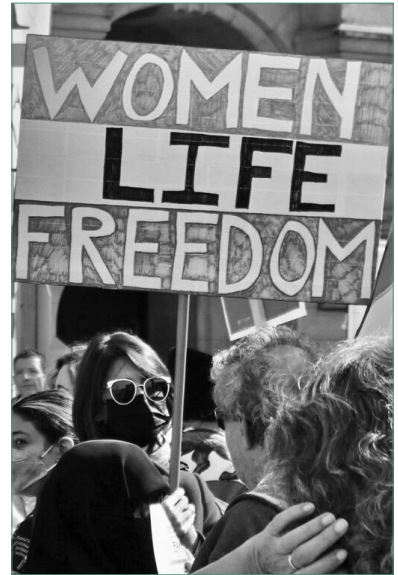
2022년 9월 이란의 거리는 왜 또 화염에 둘러싸였나? 이 거대한 저항적 사회 봉기는 어떻게 시민사회를 움직였을까? 이란의 시민 저항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한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마치 거대한 나비효과처럼 마흐사 아미니라 불리는 22세의 쿠르드계 여성의 죽음은 이후 6개월 아니 현재까지도 이란 내부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마흐사 아미니는 가족들과 고향인 쿠르디스탄 사케즈(Saqez) 지역에서 테헤란으로 여행을 왔다가, 지하철 역 앞에서 지도 순찰대의 복장 단속에 걸리게 된다. 사실 이란 전역에서 이와 같은 종교 경찰의 단속은 일상적이었다. 그녀는 여느 히잡 단속에 걸린 여성들처럼 재교육센터에 끌려갔다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마흐사 아미니의 정확한 사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초기 대규모 시위는 그녀의 죽음을 접한 분노한 젊은이들과 마흐사 아미니의 고향인 쿠르디스탄의 쿠르드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급박하게 악화되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 곳곳에는 분노의 임계점을 벗어난 이들로 가득 찼다.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의 죽음은 이란 전역을 뒤흔드는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란 여성들과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는 곧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마흐사 아미니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며 결연히 머리를 묶으면서 시위대에 합류했던 23세의 하디스 나자피와 수많은 미성년자들을 비롯해 520여 명이 정부군과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시위는 이란 사회의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이란 시민사회의 저항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글로벌 시위의 대표 슬로건이 된 ‘여성, 생명, 자유’라는 혁명적 구호의 의미는 무엇일까? ‘진, 지안, 아자디’라는 세 단어의 쿠르드어로 이뤄진 이 구호는 2006년 3월 튀르키예의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서 처음으로 쓰여 대중화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슬로건은 1980년대 튀르키예에 저항하는 무장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이 이끄는 쿠르드 자유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구호는 “여

성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쿠르드 노동자당 공동창립자인 압둘라 외잘란(Abdullah Ocalan)의 글에서 따왔다.<sup>5</sup> 쿠르드 독립운동을 이끈 외잘란은 쿠르드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곧 자율적인 여성 투쟁과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 식민주의와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들의 공동 투쟁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위 때마다 울려 퍼지는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 마법의 구호는 ISIS(이슬람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이는 이번 시위가 단순히 히잡 문제를 넘어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시위는 강제적인 히잡 착용법, 인권 억압, 소수민족 문제, 여성 차별, 그리고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엄익란(2023)이 분석했듯이,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서 촉발된 시위 이전에는 2022년 7월 강경파 전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가 서명한 히잡과 순결 법령(Hijab and Chastity Decree)이 있다. 새로운 히잡과 순결 법령에는 히잡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 도덕적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며, 적절한 히잡과 행동에 대한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Sinaee, 2022; 엄익란, 2023에서 재인용). 또한 2022년 8월 히잡 단속을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안면 인식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감시가 강화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여성들의 일상적인 불만의 한계를 벗어나게 한 것이다(엄익란, 2023: 50-51).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man\\_Life\\_Freedom\\_-\\_52564144756 .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man_Life_Freedom_-_52564144756.jpg)

그림 2 여성, 생명, 자유 시위대의 모습

<sup>5</sup> “‘Jin, Jiyan, Azadi’ in the words of their creators: Ocalan and Kurdish women?”, Medya News (2022/7/10).

이번 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광범위한 확산과 지속성, 그리고 참여자들의 다양성이다. 먼저, 이란의 전국적인, 다양한 소수 민족의 참여이다. 2022년 이란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이란 전역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참여다. 이는 마흐사 아미니라는 쿠르드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마흐사 아미니의 장례 행렬과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여성, 생명, 자유’의 구호가 시작되었고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소수민족의 저항운동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아미니의 주검이 도착했을 때 쿠르디스탄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모습과 “마흐사, 너는 죽지 않았다. 너의 이름은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부모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유포되면서, 이란 전역으로 급속히 시위의 물결은 퍼지게 되었다(Tohodi, 2023: 30). 아래의 지도에서 보여지듯이,<sup>6</sup> 테헤란뿐 아니라 쿠르디스탄, 발루치족, 그리고 자헤단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란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히 일어났다(Sadeghi-Boroujerdi, 2023: 420-421).

또한 이번 시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대는 바로 Z세대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곧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는 이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번 시위의 주역 중 하나인 “이미 세상을 다 알고 있는” 10대 여학생들의 행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떼어내고 학교에 ‘낙서 테러’를 하는 등 기성세대는 상상하지 못한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란 당국을 가장 놀라게 한 요소 중 하나였다. 여학생들이 하메네이 사진을 끌어내리고 교과서를 찢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유로워질 권리를 이란의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주지 않아요. 행복하려면 누군가에게 허락

<sup>6</sup> Sadeghi-Boroujerdi(2023) 논문에서 재인용, 원자료에서 지도 다시 캡처함. <https://www.theguardian.com/world/ng-interactive/2022/oct/31/mapping-irans-unrest-how-mahsa-aminis-death-led-to-nationwide-protests> (검색일: 2024. 7. 24.)



출처: De Hoong and Morresi(2022), Sadeghi-Boroujerd(2023: 407)에서 재인용하고 원자료에서 재캡처

그림 3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이란 전역 시위 지도

을 받아야 하나요? 무엇을 입을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치명적인가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이란 사람들 모두가 평화를 누리길 바라요. 강요된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특히 히잡 (착용)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마흐사 아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용기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 누군가가 종교적 규제를 위해 죽어야 하나요?”(2022. 10. 24. 소셜미디어를 통한 서면 인터뷰, 17세 테헤란 거주 여고생)<sup>7</sup>

<sup>7</sup> 한겨레 신문, “머리카락이 그렇게 치명적인가요?”...이란의 BTS 팬이 물었다 [테헤란의 사자들] ©이란의 미래, 시위하는 10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

10대 여학생들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에 태어나 시장 개방을 경험한 세대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가 특히 크다. 몸은 남녀 분리와 히잡 강요가 있는 이슬람 세계에 속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대, 20대가 누리는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또래들의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 그들의 삶은 공적 영역에서의 제약과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경험하고 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그들이 겪는 현실과 욕구 사이의 괴리에서 잘 드러난다. 공적 공간에서는 히잡 착용과 남녀 분리 등 이슬람 사회의 규범을 강요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K-pop 공연이나 글로벌 대중문화를 즐기며 동경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그들의 저항의식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K팝 등 외국 문화를 받아들인 세대다. Z세대들의 대담한 행동은 오히려 기성세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한편 이번 시민봉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바로 국제적인 연대의 모습이었다. 이란의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란 학계와 활동가들과 함께 분노와 연대의 목소리가 전해졌다(Kashani-Sabet, 2023: 783). 튀르키예, 레바논, 그리고 중동 각 지역의 쿠르드인들과 이란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미국 할리우드와 프랑스 배우들까지 다양한 국가와 집단에서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9월 이란에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가 가장 격렬히 끓어 올랐을 때, 인스타그램에는 ‘standwithwomenofiran\_turkey’라는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이 페이지 소개글에는 이란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계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튀르키예의 여성들은 “나는\_마흐사 아미니이다”라는 연대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을 올렸다. 또한 “우리, 튀르키예의 영화를 만드는 여성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이란의 여성 및 사람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이란 여성들을 지지합니다”라는 영상물을 연속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성소수자 여성들 역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연대했다(구기연, 2022).

글로벌 연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보여준 연대 시위의 모습이었다. 2022년 9월 30일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출처: ©standwithwomenofiran\_turkey (검색일: 2024. 3. 21.)

그림 4 standwithwomenofiran\_turkey 인스타그램 게시물

소셜 미디어에는, 총부리를 들이대는 남성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 여성들에 대한 연대 구호를 외치는 용감한 아프간 여성들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장면은 2021년 8월 탈레반 정권의 등장으로 여권신장의 퇴보를 우려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란의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연대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2021년에는 이란의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위해 연대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이슬람을 내세워 신체 자율권이 박탈당할 위험을 겪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역시 용감한 동조 시위에 나선 것이다.<sup>8</sup> 이슬람을 내세워 신체 자율권이 박탈당할 위험을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이번에는 이란 여성들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이슬람권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지지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sup>8</sup>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21025-i-felt-solidarity-afghan-women-monitor-iran-protests-vow-to-continue-fight-for-basic-rights> (검색일: 2024. 8. 10.)

무엇보다도 이란의 시민사회 봉기가 전국적 단위를 넘어 초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선 과정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했다(Kermani, 2023: 9). 이란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VPN을 이용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이어갔다. 10대 학생들을 비롯해 해외에 살고 있는 이란 교포들까지 서로의 영상과 뉴스 그리고 구호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틱톡,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로 수없이 공유하고 업로드했다. #MahsaAmini 해시태그가 시위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3억 개 가까운 트윗으로 전달되고 있었다.<sup>9</sup>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을 검열하고 위성 수신기를 범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권은 수천만 명의 이란인들 사이에서 뉴미디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2009년 녹색운동 이후, 위성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이란 국민이 국내외의 연대하는 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시위에서도 이란 디아스포라 미디어는 글로벌 연대성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주며, 주체적인 연대의 힘을 통해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란 남성들의 참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들 역시 이슬람적 규범의 강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남성들은 반바지를 입을 수 없고, 연인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 도덕경찰은 여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을 어기는 남성들도 단속한다. 이는 이번 시위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이란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 시위는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되어 온 시위의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껏 사람들의 불만들이 쌓여온 것이죠.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분노가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지게 하겠죠. 이 분노가 너무 커서 죽음을 위협하는 정권이 두렵지 않아요. 이란을 되돌리겠어요. 이란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란의 자유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2022. 10. 한국으로 유학 온 이란 남학생)<sup>10</sup>

<sup>9</sup> <https://www.aljazeera.com/podcasts/2022/10/19/irans-gen-z-movement-and-the-hashtag-wars> (검색일: 2024. 6. 30.)

<sup>10</sup> 히잡 시위, 남자도 나선 이유 “아미니도 내 친구처럼 잡혔을 것” [테헤란의 사자들] ©

이처럼 히잡 시위는 단순히 젠더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형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위의 지속성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이는 이란 시민사회의 강인함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나섰다.

이 시위는 단순히 히잡 강제 착용이나 단속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누적된 문제들이 이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JCPOA(이란 핵합의) 일방적 파기 이후 이란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진입하였다. 2022년 기준 45% 이상의 인플레이션율<sup>11</sup>과 2023년 기준 15.2%의 청년 실업률(여성 26%, 남성 12.3%)은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 간 취업률의 현저한 격차로, 15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이 63.9%인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12.1%<sup>12</sup>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어려움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은 2022년 시위의 발생과 확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 V. 2022년 히잡 시위 그 이후

2024년 9월 테헤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지역적 긴장은 적어도 테헤란 도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상류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서쪽의 쇼핑몰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히잡 반대하는 20대 남성 2022-10-20 11:00(<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63479.html>) (검색일: 2024. 8. 20.)

<sup>11</sup>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4320/iran-inflation-rate/> (검색일: 2024. 2. 20.)

<sup>12</sup> 이란통계청자료1402년(2023년 자료) [https://old.sci.org.ir/Portals/1/files/LabourForce/LFS%20Year%201402.pdf?ver=1hEGJP\\_pijQFoyHxxxxEDQ%3d%3d](https://old.sci.org.ir/Portals/1/files/LabourForce/LFS%20Year%201402.pdf?ver=1hEGJP_pijQFoyHxxxxEDQ%3d%3d) (검색일: 2024. 7. 15.)

있었다. 쇼핑몰 내 80% 이상의 여성들이 스카프를 목에 걸치거나, 아예 목에도 두르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젊은 10, 20대 여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히잡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거리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 거죠. 여성들이 바로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킨 거죠.”

테헤란의 바뀐 경관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나에게 60대의 한 여성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2년 히잡 시위는 이란 사회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는가? 2024년 이란은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2024년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헬기 사고와 그 이후 예상을 뒤엎는 개혁주의 성향의 폐제시키안 대통령 선출까지 이란의 정치적 변동은 언제나 역동적이다. 아세프 바야트(2023)가 지적했듯이, 2022년의 봉기는 ‘페미니스트 혁명’이나 Z세대의 반란, 또는 의무적 히잡에 대한 항의로 단순화할 수 없다. 이는 “삶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며, 내부 식민지화로부터 자유롭게 품위 있는 존재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개혁적인 성향의 이란 국민들은 이를 “시위가 아닌 이미 혁명”이라 선언했고, 이는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 이미 혁명은 진행 중에 있다.

이란 여성들의 저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를 감추거나 희석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운동은 이란 내 여성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문제,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 대한 연대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이란의 시민운동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연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 등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의 강경 진압은 이란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

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란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는 이란 시민사회의 성숙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다. 2022년 이란의 시위는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란 정부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란 시민들의 시위는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순수한 내부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오히려 이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내부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란의 2022년 시위는 단순한 반정부 시위를 넘어, 이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성의 주도성,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연대, 창의적 저항 방식, 디지털 기술의 활용, 지속성과 회복력, 국제적 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란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위는 단순한 히잡 착용 문제를 넘어 이란 사회의 깊은 모순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는 이란 시위의 본질이 단순한 여성의 권리 주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시위 아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란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 정부의 백래쉬 역시 만만치 않다. 이란의 히잡 시위 이후 제정된 새로운 히잡 법안은 이란 사회의 깊은 균열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민중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시위 속에서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정권의 불안과 공포가 커졌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연로해 후계 구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정권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위의 재발 가능성과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2023년 9월 20일, 여성의 복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히잡과 순결 문화 증진을 통한 가족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24년 9월 이슬람법 수호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곧 시행될 예정이다.<sup>13</sup>

<sup>13</sup> Human Rights Watch, October 14, 2024, Iran: New Hijab Law Adds Restrictions and

이 법안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여성 억압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사회적 반향은 주목할 만하다. 새 법안의 핵심 내용은 히잡 미착용을 ‘나체’와 동일시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공공장소 및 온라인상에서의 ‘부적절한’ 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슬람 규범에 벗어난 복장을 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용한 기업, 식당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복장 규정 위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간접적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 기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등의 감시 및 단속 권한을 확대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감시 카메라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정부에서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량을 압수하는 방법이다.<sup>14</sup> 한 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은 히잡 시위가 일어난 1년 후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경찰이 여성 운전자 혼자 운전하고 있더라도 히잡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압수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심층면담을 진행한 이란 여성들 모두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게 번거로워서, 혼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오히려 히잡을 쓰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히잡을 벗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히잡 단속이 심했던 2022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히잡 시위 전까지 이란 여성들에게 자동차 내부는 거대한 도덕 공간에서 유일하게 ‘은밀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상반된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2019년 7월 이후 약 30만 대의 운전자가 히잡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경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 의견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당시 종교경찰은 녹색 밴을 타고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강제 체포할 수 있는 권리도 받았다. 또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히잡

Punishments, <https://www.hrw.org/news/2024/10/14/iran-new-hijab-law-adds-restrictions-and-punishments> (검색일: 2024. 10. 15.)

<sup>14</sup> <https://www.iranintl.com/en/202311301311> (검색일: 2024. 8. 10.)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학교 경찰에 여성들의 의복을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는 전권을 주기도 했다(Raventos, 2022; 엄익란, 2023 재인용). 하지만 2022년 9월 이후 적어도 테헤란 도시의 여성들은 그에 대한 강제 법안을 무시하고 시민 불복종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과 그 지지자들은 채찍질, 여행 금지, 소셜 미디어 제한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히잡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직장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의 절박함을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새 법안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은 이 법이 이슬람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히잡이 이란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믿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의무화를 지지한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2024년 9월의 테헤란에서 20대의 한 여성은 허리까지 내려온 머리를 늘어뜨리고, 힙합 바지를 입고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종교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는 나의 질문에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타즈리쉬(테헤란의 가장 변화가 중 하나인) 시내도 다니는 걸요. 지난번에 거리에서 도덕 경찰한테 잡히긴 했는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개혁 성향의 이들은 여성의 복장 선택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거나 느슨하게 착용하는 등의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변화만으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도적 입장의 시민들은 이 법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히잡 시위를 이란 여성 사회운동이나 젠더 저항운동으로 납작하게 이해한다면, 히잡 규정을 둘러싼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복잡한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한다.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적법성과 합헌성이 의심 들 때, 시민 불복종이 일어난다

는 아렌트(2011: 116)의 주장처럼, 2022년 히잡 시위는 이란 정부의 분열과 불합리한 정치를 행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에 히잡 시위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이란 정권의 행보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VI. 결론: #시위가 아니라 이미 혁명이다

2024년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이란 사회에서 히잡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일부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정부가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히잡법은 이란 정부가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히잡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이슬람 혁명의 이념을 재확인하고, 반체제 움직임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란 사회 내의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은 이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경제 제재 등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새로운 히잡법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 종교적 가치,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란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란 사회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의 2022년 시위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민사회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으며, 이란 정권과 시민사회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호 연관성, 디지털 시

대의 사회운동 특성과 전략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연대의 확산은 21세기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2022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내에서는 교사, 노동권 활동가, 노조 지도자, 인권 활동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가 급증하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sup>15</sup> 앞으로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형태의 거대한 시민 불복종의 움직임은 이란 정권을 긴장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은 틀림없다.

2024년 이란의 정치적 변화, 특히 폐제시키안 개혁과 대통령 당선은 이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의 당선은 2022년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란 시민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한다. 이란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란의 시민운동은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체제와 시민사회의 갈등, 종교와 근대성의 충돌, 젠더 평등과 전통적 가치관의 대립 등 현대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앞으로 이란의 시민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탄압과 국제 정세의 변화, 이란 사회 내부의 세대 간 인식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운동의 방향을 형성해 나갈지 주목해야 하며 더불어 이란의 경험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민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로도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2022년 시위와 그 이후의 변화는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즉각적인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란 사회의 의식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험과 의식의 축적은 앞으로의 이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란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꿈꾸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

<sup>15</sup>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6/iran-un-experts-alarmed-civil-society-crackdown>

정이다. 이란의 변화는 중동지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 국제 사회의 압력, 내부 보수세력의 저항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란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란의 현대 사회운동을 이해함에 있어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사회의 변화 양상과 그 잠재적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란의 시민 불복종 운동 사례를 통해 사회 변화의 동력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란, 나아가 중동의 시민사회의 사회운동과 불복종운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4년 10월 10일 | 심사일: 2024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 참고문헌

- 구기연. 2017.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구기연. 2019. “혁명 거리의 소녀들(#GirlsofRevolutionStreet): 해시태그 정치를 통한 이란 여성의 사회 운동.” 『비교문화연구』 25(1): 5-43.
- 구기연. 2022. “여성 해방이 곧 사회의 해방이다: 2022 이란 시위와 글로벌 연대의 목소리”, 『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웹진』(<https://kyeol.kr/ko/node/496#footnote-marker-2-1>) (검색일: 2024. 9. 1.)
- 구기연. 2023. “인스타스토리로 연대하기.” 『한편』. 민음사.
- 김범석·장동진. 2016. “입헌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존 롤즈와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6(4): 97-124.
- 엄익란. 2023. “이란의 종교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머리카락과 히잡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3(1): 31-60.
- 버틀러, 주디스 저. 조현준 역. 201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 롤스, 존 저. 황경식 역. 2003. 『정의론』. 이학사.
- 아렌트, 한나 저. 김선옥 역. 2011.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시민불복종·폭력론』. 한길사.
- Afary, Janet, and Kevin B. Anderson. 2023. “Woman, life, freedom: The origins of the uprising in Iran.” *Dissent* 70(1): 82-98.
- Bayat, Asef. 2007. “A Women’s Non-Movement: What It Means to Be a Woman Activist in an Islamic State.”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7(1): 160-172.
- Bayat, Asef. 2023. “Is Iran on the Verge of another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34(2): 19-31.
- Chabot, Sean, and Majid Sharifi. 2013. “The violence of nonviolence: Problematizing nonviolent resistance in Iran and Egypt.” *Societies Without Borders* 8(2): 205-232.
- De Hoog N and Morresi E. 2022. Mapping Iran’s Unrest: how Mahsa Amini’s death led to nationwide protests. The Guardian. (<https://gijn.org/stories/data-journalism-top-10-biased-missing-persons-coverage-funding-election-deniers-brazil-electoral-violence-mapping-irans-protests/>)(검색일: 2024. 8. 1.)
- Kamali, Masoud. 2018. *Revolutionary Iran: Civil society and state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Routledge.
- Kamrava, Mehran. 2001. “The Civil Society Discourse in Iran.”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28(2): 165-185.
- Kashani-Sabet, Firoozeh. 2023. “A Nation in Turmoil, A Field in Crisis: The Upshots of Woman, Life, Freedom.”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55(4): 777-785.
- Kermani, Hossein. 2023. “#MahsaAmini: Iranian Twitter Activism in Times of Computational Propaganda.” *Social Movement Studies*, February, 1-11.
- Khorasani, Noushin Ahmadi. 2009. “Iranian Women’s One Million Signatures Campaign for Equality The Inside Story. Women’s Learning Partnership.” ([https://learning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dfs/One-Million-Signatures-Campaign-English\\_0.pdf](https://learning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dfs/One-Million-Signatures-Campaign-English_0.pdf))(검색일: 2024. 8. 3.)
- Khosravi, Shahram. 2008. *Young and Defiant in Tebr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hdavi, Pardis. 2011. "Iran's sexual revolution." *Introducing the New Sexuality Studies*. Routledge, 424-430.
- Mehrabi, Tara. 2022. "Woman, Life, Freedom: On Protests in Iran and Why It Is a Feminist Movement." *Kvinder, Køn & Forskning* (Online) 2: 114-121.
- Molana, Hanieh, A. Marie Ranjbar, and Sahar Razavi. 2023. "Woman, Life, Freedom: Decoding the Feminist Uprising in Iran." *Political Geography* 103: 102834.
- Paidar, Parvin. 1997. *Women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twentieth-century Ir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fizadeh, Majid. 2014. "The Unrecognized Social Movements: The One Million Signature Campaign and the Islamist State of Iran." *Abfad Journal* 31(2): 53-66.
- Raventos, Raquel Reyes I. 2022. "The Fight of Iranian Women is a Fight against Patriarchal Violence." *Euobserver*, October 24. <https://euobserver.com/opinion/156330> (검색일: 2024. 8. 10.)
- Rivetti, Paola. 2020. *Political Participation in Iran from Khatami to the Green Movement*. Palgrave Macmillan.
- Sadeghi-Boroujerdi, Eskandar. 2023. "Iran's uprisings for 'Women, Life, Freedom': Over-Determination, Crisis, and the Lineages of Revolt." *Politics* 43(3): 404-438.
- Sameh, Catherine. 2014. "From Tehran to Los Angeles to Tehran: Transnational Solidarity Politics in the One Million Signatures Campaign to End Discriminatory Law." *Women's Studies Quarterly* 42(3/4): 166-188.
- Sameh, Catherine. 2019. *Axis of Hope: Iranian Women's Rights Activism Across Border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cott, James C. 2016.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Routledge, 3-33.
- Semati, Mehdi, ed. 2007. *Media, Culture and Society in Iran: Living with Globalization and the Islamic State*. Routledge.
- Sinaee, Maryam. 2022. "Iran's Raisi Orders Strict Enforcement of Hijab Amid Crackdown." *Iran International*, July 6. <https://www.iranintl.com/en/202207065340> (검색일: 2024. 8. 10.)
- Tohidi, Nayereh. 2023. "Iran in a Transformative Process by Woman, Life, Freedom." *Freedom of Thought Journal* 13: 29-57.
- Varzi, Roxanne. 2006. *Warring Souls: Youth, Media and Martyrdom in Post-*

*Revolution Iran*. Duke University Press Books.

### 〈신문 기사〉

- 한겨레 신문, 히잡 시위, 남자도 나선 이유 “아미니도 내 친구처럼 잡혔을 것” [테헤란의 사자들] ②히잡 반대하는 20대 남성 2022-10-20(<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63479.html>) (검색일: 2024. 7. 24.)
- 한겨레 신문, “머리카락이 그렇게 치명적인가요?”...이란의 BTS 팬이 물었다 [테헤란의 사자들] ⑥이란의 미래, 시위하는 10대([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4264.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4264.html)) (검색일: 2024. 7. 24.)
- <https://www.aljazeera.com/podcasts/2022/10/19/irans-gen-z-movement-and-the-hashtag-wars> (검색일: 2024. 6. 30.)
-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21025-i-felt-solidarity-afghan-women-monitor-iran-protests-vow-to-continue-fight-for-basic-rights> (검색일: 2024. 8. 10.)
- <https://www.iranintl.com/en/202311301311> (검색일: 2024. 8. 10.)

### 〈인터넷 자료〉

- 이란통계청자료 1402년(2023년 자료)  
[https://old.sci.org.ir/Portals/1/files/LabourForce/LFS%20Year%201402.pdf?ver=1hEGJP\\_pijQFoyHxxxEDQ%3d%3d](https://old.sci.org.ir/Portals/1/files/LabourForce/LFS%20Year%201402.pdf?ver=1hEGJP_pijQFoyHxxxEDQ%3d%3d) (검색일: 2024. 7. 15.)
-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6/iran-un-experts-alarmed-civil-society-crackdown> (검색일: 2024. 8. 5.)
- <https://icanpeacework.org/2013/09/the-one-million-signatures-campaign-an-effort-born-on-the-streets/> (검색일: 2024. 8. 10.)
- <https://www.instagram.com/shervinine/> (검색일: 2024. 8. 5.)
- [https://en.wikipedia.org/wiki/Shervin\\_Hajipour](https://en.wikipedia.org/wiki/Shervin_Hajipour) (검색일: 2024. 8. 5.)
- <https://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iranian-activists-one-million-signatures-campaign-gender-justice-2006-2008> (검색일: 2024. 8. 10.)
- <https://www.hrw.org/news/2024/10/14/iran-new-hijab-law-adds-restrictions-and-punishments>(Human Rights Watch, October 14, 2024, Iran: New Hijab Law Adds Restrictions and Punishments) (검색일: 2024. 10. 15.)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4320/iran-inflation-rate/> (검색일: 2024. 2. 20.)

## Abstract

## Women · Life · Freedom: The 2022 Iranian Hijab Protests and the History of Civil Disobedience

Gi Yeon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large-scale protests in Iran triggered by the death of Mahsa Amini in September of 2022 along with the subsequent soci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aper highlights these protests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Iranian civil society and the women's movement. Under the slogan "Women, Life, Freedom," the protests evolved from opposition to mandatory hijab laws into a broader movement demanding fundamental societal changes. Key events, such as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during President Khatami's administration in the late 1990s, the 2006 Million Signatures Campaign, and the 2009 Green Movement, illustrate the evolution of civil disobedience in Iran.

The 2022 protes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nationwide spread, cross-generational and cross-clas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social media, and creative forms of resistance. They posed fundamental challenges to the Islamic regime, with significant participation from youth and women, reflecting a deep desire for socie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hijab protests in 2022, particularly the enforcement of hijab laws, and analyzes the ongoing patterns of resistance. In doing so, it presents a view of the deep fractures within Iranian society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change.

In conclusion, the 2022 protests were more than merely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they were a significant event showcasing the maturity and capabilities of Iranian civil society. They offer a critical case study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civil society movements under authoritarian regimes, contributing to broader discussions focusing on democratization, women's rights, and social change in the Middle East. Additionall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Iran's civil disobedience movements,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future political and social trajectory of Iran.

**Keywords |** Civil Disobedience, Civil Society, Iran Hijab Protest, Women · Life · Freedom, Iranian Women's Movements

